교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다

인천동양중, 2016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인천동양중학교가 2016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동양중학교는 '토의·토론 활동으로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이라는 주제로 2015년 11월 교사를 대상으로 2016년 교육과정 명칭을 공모한 결과, 'Talk! 톡! 톡! 어울려 깨치고 랩처라 어.깨.퍼 catch phrase'가 선정돼 교실수업개선을 통한 행복교육 실천을 출발하게 됐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 창의·인성 신장을 위한 교과 간 융합수업 실천, 교육과정 기획력 강화를 위한 전문학습 공동체 활성화, 책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MOU체결)하는 등, 역량 중심으로 수업을 디자인하여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토의·토론을 통한 '나'를 가꾸는 활동(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등 다양한 분야의 질 높은 교육활동을 실시했다.

수업 방법 혁신 위한 교과 교육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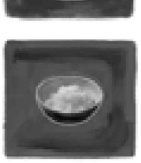
교과별 전문학습공동체 및 창의·인성 수업연구회 활성화를 통해 학생 활동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에 100%의 교사가 참여, 학부모 대상 수업공개, 수업연구발표대회, 배움중심 수업코칭, 전교사 수업 나눔 토론회 개최 등으로 학생과 교사가 동시에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실천했고, 교과 내, 교과 간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구안한 융합 교수·학습 과정안으로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Visual Thinking, 하브루타, 스토리텔링 발표학습, 토의·토론 학습으로 학생참여 수업을 전개했으며, 창의적 체험실습평가, 운동기능 평가(체육-100% 수행평가 실시), 포트폴리오, 독서 논술형 평가 등 교과 특성에 맞게 수업과 연계하여 실질적 과정중심 평가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했다.

또한, 학생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한 학생중심 스승의 날, 어깨펴! 하모니 합창대회 개최, 함께해孝, I love Korea 나라사랑교육, 우리는 하나 ONE 프로젝트(사랑 IN! 폭력 OUT!) 등 운영으로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했으며, 미래 명함 만들기, 전문직업인 초청, 진로 로드맵그리기, 학교환경개선 Pop Art 프로젝트 등으로 진로 역량을 강화했다.

학교 특색 살린 교육과정 우수사례

자체 제작한 '생각의 샘'을 활용, '생각을 여는'독서 시간 운영, 도서관 활용 수업 등으로 Talk! 톡! 톡! 토론을 위한 지식 기반을 배양하고, 교과 융합 단계적 토론수업(토론의 형식과 절차 습득)과 학년별 토론대회 개최로 공동체 및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했으며, 학급별 학년별 자치 토론회와 토의를 기반으로 한 학생 자치 자율활동 운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등 미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와 이번에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인용섭 기자 ays@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지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의식주처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건설산업!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을 이끄는
우리 산업의 중심이 되어 오늘도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건설강국 KOREA를 짓습니다

CAK 대한건설협회

지역 봉사활동 새로운 기반 마련

명현중 '행복 나눔 성장학교' 연합 보고회

명현중학교(교장 김기택)는 12월 2일 인천광역시교육청지정 행복 나눔 성장학교 연합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연합 보고회에는 행복나눔 성장학교를 운영한 인천대건고등학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인천상정중학교와 명현중 봉사동아리 학생 명이 참석했고 국제청소년교육원 김희경 대표, 시교육청 봉사활동 담당 공숙자 장학관, 이재일 장학사 및 지도교사와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해줬다.

각 학교에서는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혼자 방치된 아동들의 돌봄 문제, 어린이집 승하차 안전사고 등 우리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며 창작 활동까지 해본 경험의 발표를 통해 반성과 평가의 시간을 가지며 다른 학교 활동도 배워보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지정해 주관하는 행복 나눔 성장학교는 청소년들이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깨닫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문제를 발견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체적, 전인적 성장의 기회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된 행복 나눔 성장학교를 통해 명현중학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 주도성을 높여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에 앞장서는 건강한 학교사회 및 청소년 문화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인용섭 기자 ays@

진로와 학습과의 관계 인식하다

간재울중, 2016 학습전략 진로캠프 행사 실시

간재울중학교(교장 김기배)는 취약시기를 맞은 2학년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구체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12월 16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학습전략 진로캠프 행사를 실시했다.

학습전략 목표 세우기, 학습과 진로의 관계 알기, 전략적 공부 방법, 시간 관리 방법, 비전설정 리스트 작성, 진로 멘토링 동영상 시청 과정으로 진행됐는데, 학생 자신의 셀프브랜딩을 위한 학습전략 방법과 실용적인 시간 관리 방법을 배우며 진로와 학습과의 관계를 깨달아 가는 내용이라서인지 학생들은 호기심 있고 흥미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간재울중 진로캠프 행사는 학생들 자신이 시간 관리 방법을 배워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체계적인 시간 관리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 태도를 갖출 수 있고, 진로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함양했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인용섭 기자 ays@

미래 직업찾기 호기심 가득

만수중, 직업인과 함께하는 진로캠프의 날 운영

만수중학교(교장 김숙애)는 12월 15일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이지니어스 진로직업체험교육센터(부천 소재)에서 '직업인과 함께하는 진로캠프의 날'을 운영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하는 만수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총 20개의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선택을 한 5개의 프로그램 '직업군인과 병영체험, 캐릭터디자이너와 콘텐츠디자인, 영화제작과 디렉팅, 홈쇼핑과 쇼호스트' 중에서 선택활동을 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직업인들의 현장감을 살린 정보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각각의 직업 세계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청소년기에 올바른 진로 가치관을 형성하며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을 만남으로써 진로에 대해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여한 김종훈 학생은 "직업 군인의 계급 구조를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직업군인의 자세와 임무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직업인과 대화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진지하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인용섭 기자 ays@

장애특성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정책연구 공감 나눔 보고회 개최

인천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은 15일 오후 시 교육청 4층에 마련된 토론회장에서 2016년 특수교육 정책연구 공감 나눔 보고회를 가졌다. 2016년 1년 동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교수들이 특수교육 정책연구 결과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교사들이 실행한 자료들을 발표하여 나누는 자리로, 특수교육관련 전문가, 교원들 110명이 참석했다.

인천교육청에서 2016년에 수행한 특수교육정책연구는 모두 4개로 '자폐성장애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운영지원 모델 개발', '중도·중복장애 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모델 개발', '건강장애 이해자료 개발',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 개발' 등 이다. 이 연구결과들은 전국에 보급되어 특수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박윤국 교육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시교육청의 특수교육팀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국 최고의 특수교육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특수교육정책연구를 수행해 전국의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하였고, 이는 모든 특수교육 교원들의 노력과 협조 덕분"이라면서 "더불어 이번 특수교육정책연구가 특수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각 정책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들은 1년 동안 특수교육 정책연구를 위하여 각종 연수에 참여하고 교수학습자료를 만드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연구 보고서와 자료가 나온 것을 보고 그동안의 수고가 보람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사들은 대부분의 정책연구가 보고서로 끝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특수교육정책연구는 장애당사자, 학부모, 특수교사, 일반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특수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는 "이번 정책연구 보고서는 전국에 배부하고, 특히 인천시는 2017학년도 개교하는 인천청선학교에 자폐성장애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 전국 최초로 설치한 중도·중복장애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에 치료지원을 교사와 협력해 지원할 수 있는 치료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